

“대부도에도 닥터헬기장이 필요하다”...주민들 촉구

대부도 주민들 사이에서 닥터헬기장 설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부도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저녁이나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시화 병원이나 고려대 안산병원 등 육지의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우리의원에는 입원실이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 주 이동 동선이 아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심정지·중증외상 환자는 119 구급차만으로는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닥터헬기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도에는 닥터헬기장이 없다. 풍도와 안산 도심에는 헬기장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도는 제외되면서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후송이 어렵다. 최근 탄도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임시 이착륙을 통해 응급환

자를 후송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며 원칙적으로 헬기 이착륙은 정식 헬기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민들은 “대부도에 의원은 있지만 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에 더 취약하다”며 “단지 대부도에 산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도에 닥터헬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아직 공식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풍도·시내 헬기장 활용이 가능해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도 닥터헬기장 설치 요구가 주민 안전권 보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APEC 만찬주 ‘그랑꼬또 와인’ 생산농가 격려자리 마련

대부도 소재 그린영농 조합
현재 35명 조합원으로 구성

안산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오른 그랑꼬또 ‘청수’와인 생산 법인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밝혔다.

이번 공식 만찬주 선정은 그린영농조합이 약 30년간 이어온 연구와 품질 개선의 결과이며, 지역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된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3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1996년 설립 이후 지역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며 한국형 와이너리 모델을 확립해 왔다.

그린영농조합법인은 2000년에 포도 가공시설을 갖추고, 2003년 그랑꼬또 브랜드를 출시하며 한국 와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그랑꼬또의 대표 품종인 청수 화이트와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10여 차례 금·은메달을 수상하고, 우리술 품평회에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



이민근 시장(왼쪽 세번째)이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오른 그랑꼬또 ‘청수’와인 생산 법인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김지원 법인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상을 차례로 수상하며 한국 와인의 품질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민근 시장은 “그랑꼬또 와인은 안산 농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이 관광·체류와 연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안산시, 올해의 SNS 4개 부문 최우수상... 소통 행정 빛나

안산시는 제11회 2025 올해의 SNS 기초지방자치단체 4개 부문(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X(구 트위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 활용 지수를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안산시는 채널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시청 소식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축제 인증샷 이벤트를 다채롭게 진행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SNS 시민기자단 29명이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도를 확대한 점도 좋게 평가받았다.

시는 2010년 트위터(현 X)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총 7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2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발행 등 세로형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며 시민들의 긍정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감과 신뢰의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6월 ‘2025 소셜 아이워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도 인스타그램 최우수상과 네이버 블로그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도시공사, 안산썰매장 운영 직원 공개채용

운영요원 11명·응급처치
전문요원 1명 등 총 12명
12월 5일까지 접수

안산도시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안산썰매장에서 근무할 직원 1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썰매장 운영요원 11명과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처치 전문요원 1명 등 총 12명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썰매장 운영요원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민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전문요원은 거주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안산도시공

사 채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면 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에 대한 세부일정 및 자격조건 등은 안산도시공사 누리집 내 ‘채용/위촉강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단원 모집

우리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하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 나아갈 대부도저널 산하의

‘대부도 24시 공정감시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요강

○ 모집대상

-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
- 지역 안전, 환경 감시에 관심이 많은 분

○ 모집기간

-2025.11.20(목) ~ 마감 시 까지

○ 모집인원

- 00명

○ 지원방법

전화 [032-880-9994]
또는 온라인 접수 [dj250407@naver.com]

활동 및 혜택

○ 활동

- 대부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 공공시설 및 도로, 하천, 공유지 및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시
- 불법투기, 불법행위 감시 및 기록
- 언론·행정·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혜택

- 감시단 단원증 발부
-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자동차 스티커 발부
-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문의 : 010-3199-4992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대부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부도. 우리가 지켜봅시다”

안산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돌봄·이동·일자리 정책 본격화

이민근 시장“전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안산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하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 도시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안산시청에서 ‘WHO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환경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사회 참여 및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 8대 영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세대 아우르는 ‘안산형 포용도시 비전’ 제시

앞서 시는 2020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지난달 네트워크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최종 인증을 받았다.

시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이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아동·여성·고령층이 함께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



이민근 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6일 안산시청에서 ‘WHO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인증’ 기념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체계적인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 ▲이웃이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3년간 유효한 이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기간 동안 세대 간 연대,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 사회참여와 돌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일자리·이동권 강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안산시는 같은 시점 기준 16.5%로 고령사회 단계에 있지만, 오는 2029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2024년 안산시 노인등록 통계보고서’)되고 있다.

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단원구 초지동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구룡경로당 및 경로식당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복지·건강·주거·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노인케어 안심주택 모델’을 도입했다. 올해는 ‘안산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에서 현장 중심·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똑버스(DRT)’를 도입(2023년)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버스요금으로 택시처럼 원하는 곳에서 승차할 수 있는 똑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대부도 지역 고령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부도 내 14개 경로당에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신규 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6,317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직능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동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정책을 포함한 주요 시정 방향에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여성친화, 아동친화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아 명실상부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어르신뿐 아니라 전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겨울철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민근 시장(맨 앞줄 왼쪽 아홉번째)이 25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25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0여 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구호 활동의 중요성 및 대설, 한파 행동 요령에 대한 사항을 다뤘다. 아울러, 자연재해 예방·대응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방재단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소에도 산불감시 활동, 여름철 하천 통제선 설치 및 위험지역 예찰, 거

울철 제설작업, 무더위·한파컴퓨터 점검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설철희 단장은 “단원들의 재난대비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풍수해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재해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남초 ‘꿈꾸는 우리들의 솔향 축제’ 12월 5일 개최

대남초등학교가 오는 12월 5일(금) 오전 10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층 대강당에서 ‘꿈꾸는 우리들의 솔향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문화·예술 활동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학부모와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교는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1~6학년 전교생과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축제에 함께할 수 있다.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 중 학교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 20분까지 등교해야 하며, 당일 통학버스 시간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연극 의상은 행사 당일 가정에서 착용해 등교하거나 행사장으로 직접 가져오면 된다. 착용 의상은 12월 8일 담임교사에게 반납한다.

행사 당일 방과후 교실은 운영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출발하는 학교 차량은 오후 1시 30분에 운행한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자와 개별 귀가하게 된다.

대남초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전 안산시장 제종길



이번 스톱모션 영상은 다문화마을특구의 다문화적 풍경과 로컬디자인 사업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새롭게 변화하

는 다문화마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市, 공영도매시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수상 영예



안산농산물(주) 관계자(오른쪽 두번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공영도매시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안산시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 안산농산물(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공영도매시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매시장 평가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실천 노력, 정부정책 동참 등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한 45건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안산농산물(주)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친화적 운영 선도 등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3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산농산물(주)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매해 600톤가량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해 연간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또, 생성된 동물사료를 지역 축산농가에 무료로 기부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범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매시장 내 법인이 환경친화적 경영실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스톱모션 홍보영상 공개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문화마을특구 스톱모션 홍보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 영상은 다문화마을특구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로컬디자인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특구의 풍경을 따뜻한 색감과 감성적 연출로 구현했다.

특히, 피사체들을 프레임마다 조금씩 움직여 활영한 모습을 연속 재생하는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다문화마을특구의 활기와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담았다.

영상에서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던

남매가 맛있는 뽕새를 따라 다문화마을특구를 방문해 다양한 외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여정을 그린 다.

홍보 영상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유튜브 채널 ‘놀러와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됐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안산·화성·시흥을 경유하는 경기G버스 내 G-TV 모니터에도 해당 영상을 송출해 다문화마을특구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장, 선현우 의원 선출

예결위원 7인 12월 5일부터 심사 돌입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



안산시의회가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사진 왼쪽부터 송바우나 유재수 김재국 위원, 선현우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들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급

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 쓰이도록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송바우나 안산시의원 “알고 보니 4개국어 능력자?”

영어·독일어·일본어·중국어 다문화도시 안산 배경으로 국제교류 현장서 존재감 업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 더불어민주당)이 연

이어 공개된 외빈 응대 영상에서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선보여 화제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에 업로드된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 3천회를 넘기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

고 있다.

영상 속 송바우나 의원은 오스트리아 린츠시 대표단과 독일 아헨 특구시 대표단을 맞아 영어와 독일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또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과는 일본어로, 중국 상하이시 대표단과 대만 단수이시 JC 임원진과는 중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담겼다.

의전 현장에서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바우나 의원의 외국어 능력은 도시 간 국제교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현 국회의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홈플러스 정상화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최종 입찰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현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율적 해결에만 기대어

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TF는 당 지도부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당론 채택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10월 말 두 곳의 기업이 공개입찰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오늘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이 무산되면서 M&A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과 고용·지역경제 대책의 시급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이 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최종 입찰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움은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10만명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싸움”이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홈

플러스는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홈플러스는 안산

진보당 박범수 위원장, 강조



26일부터 이틀간, 민주노동당 공영대노동조합 안산지부가 2025년 조합원 수련회를 안산시 평생비전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조합원수련회는 레크레이션과 강연, 시청 앞 거리 선전전으로 간략하게 진행되었

다. 강연 내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이유였다.

수련회를 개최한 연종흠 공공연대노동조합 안산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끝내자고 지난 대선때부터 요구해왔지만 이제 명 정부에서 변화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수련회를 통해 조합원들과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을) 지역에만 3개 매장이 있었을 정도로 안산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이었으나, 경영난으로 폐점이 이어졌고 현재 남아 있는 안산고잔점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 봉 도 앞

명품 바다 뷰

- ◆ 탁 트인 바다뷰 ◆ 시원한 술발정원
-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 반려동물 놀이터
-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70평 1층 식당

* 시설비 2,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말부흥어촌계, 유어장 범람·출입로 단절 문제 해결 위해 시의회에 SOS

“더는 버틸 수 없다”...
말부흥어촌계, 선현우
시의원과 현안 긴급 논의

말부흥어촌계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유어장 범람 문제와 어촌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의회를 직접 찾았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초기 설계의 문제”라는 답변만 반복되자, 어촌계는 더 늦기 전에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신준선 어촌계장과 임기만 통장을 포함한 어촌계원 10여 명은 대부도 지역구를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선현우 안산시 의원과 날짜를 조율해 현장에서 직접 논의를 진행했다.

선현우 의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부흥 유어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촌계원들의 설명을 들었다. 어촌계원들은 “사리 때마다 유어장이 범람해 바닷물이 사무실까지 들어오고 장비가 손상된다”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특히 사무실 바닥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반 보강, 배수시설 정비, 구조물 보수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말부흥어촌계 사무실에서 안산시의회 선현우(오른쪽에서 세 번째) 의원이 어촌계원들과 함께 어촌계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을 모았다. 또한 어촌계원들은 소득과 직결되는 작업 문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어장 앞 갯길 약 300m 구간의 뚝이 높아져 경운기 진입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옆 마을로 우회해 작업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마을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일정을 잡

아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역 현안인 말부흥 노인정의 누수 문제도 논의됐다. 어촌계는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샌다”며 긴급 보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내년 1월 초 바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준선 어촌계장은 “깨끗한 어항과

안전한 작업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사리 때 유어장이 침수되는 지역을 우선 조사한 뒤 국유지·시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종현어촌계,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대상’ 수상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박 2일간 개최한 가운데 종현어촌계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다. 김태창 기자

해수부 장관상 영예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박 2일간 개최됐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상생으로 혁신하는 어촌, 희망을 실현하는 어촌’을 주제로 전국 우수 어촌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대회에

서 대부도의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는 도·어교류 촉진 마을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상금은 100만원이다. 김부열 어촌계장은 “종현어촌계의 큰 경사다. 지난번 대통령 표창에 이어 연이어 좋은 성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민을 위한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어촌계를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10대부터 80대까지... 대부도서 ‘세대공감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꿈꾼다” “누구나 참여하는 음악공동체, 대부도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첫걸음”

대부도에서 독특한 음악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지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오랫동안 대부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해 온 임은미 원장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오카리나’를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게 꿈이라고 말한다. 임 원장은 악기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

의 음악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원장은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로 고르게 구성된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 사회 초년생, 은퇴 세대 모두가 함께 연주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가 될까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세대로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참여해 최소 80명에 이

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구상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연령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카리나는 배우기 쉬운 악기로 알려져 있어 음악 경험이 없는 주민도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다. 특히 대부도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동체 문화 형성과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낼 새로운 문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 또한 “

실현만 된다면 대부도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임 원장의 도전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창단 준비가 본격화되면 대부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파크골프 인구 급증... 체계적 교육 위한 ‘파크골프 스쿨’ 요구 확산

대부도에서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3년 전 20여 명에 불과하던 동호인은 현재 200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지역에는 4개의 클럽이 조직될 만큼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기초 교육 과정이 없어 선배 동호인이 용어와 기본 샷 정도만 간단히 알려준 뒤 곧바로 필드로 나서는 실정이라서 아쉬움이 제기된다.

최근 단원구노인복지관이 신길동 파크골프장을 활용해 ‘어르신 파크골프 스쿨’ 개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부도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대부도에는 파크골프장이 2곳이나 있어 교육체계가 도입된다면 많은 동호인들이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우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산악회,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산행

성심당 본점도 중간 경유

대부도 산악회(회장 김근오)는 11월 27일 산악회원 44명이 대전에 있는 휴양지로 유명한 장태산과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성심당 빵집 본점에 다녀왔다.

장태산 휴양림은 30만여 평에 각종 편의 시설과 산림욕장, 야영장, 방갈로, 출렁다리,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은 물론 사계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특히 메타세콰이어는 직경 30~40cm, 높이 20m 안팎의 전봇대만 한 크기로 자라 아름다운 풍취를 자아내고 있다. 장태산 정상에 있는



대부도 산악회는 11월27일 산악회원 44명이 대전에 있는 휴양지로 유명한 장태산과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성심당 빵집 본점에 다녀왔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전망대에서는 장안 저수지와 팔마정이 그림같이 내려다 보이고 장군봉 형제바위 행상바위 등 기암괴석들이

솟아있어 한층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다. 우리대원들은 힐링 코스로 만남의

숲, 생태연못, 놀이터, 출렁다리를 거쳐 메타세콰이어길, 산림욕장 등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비가 조금 내려

출렁다리 문이 잠겨 올라가지 못했지만 주변에 메타세콰이어 숲을 거닐며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했다. 절기로는 겨울의 소식이 지났지만 메타세콰이어와 주변 단풍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단풍도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11월에 물드는 현상을 직접 체험 했다.

우리는 점심을 삼겹살에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맛있게 먹고 대전에서 운영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 빵집 본점을 방문해 여러 가지 빵 굽는 과정을 보고 맛있는 빵을 맛으로 체험해 보았다.

이어 차안에서 서로 화합을 다지며 회원들의 후원으로 여러 가지 단감과 사과 등 과일과 떡의푸짐한 먹을거리를 서로 나누어 먹고 회원들이 자기 소개와 함께 대부도의 유익한 정보들

공유하면서 소통의 장이 되어 함께 어우러져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스트레스도 날려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부도 산악회는 대부도 주민과 사업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비 5만원을 선 입금하고 참여하는 자유로운 산악회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도 산악회는 전국 유명한 관광지 둘 두루 다니며, 힐링하고 즐기면서 견문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얻어 생활에 적용하면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대부도 산악회 가입은 회장(김근오 010-5339-2027) 이나, 총무 (황영애 010-8223-5646)에게 연락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2025 다문화가정 스피치대회, 안산시 첫 개최”

감동의 목소리 울린다 다름을 넘어 공감으로

세계평화여성연합 안산시지부가 주최한 ‘2025 다문화가정 스피치대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4개국 출신 7명의 참가자가 최종 무대에 올랐으며, 20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은 뜨거운 응원과 박수로 가득했다.

조순선 세계평화여성연합 안산시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다문화가정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용기 있는 발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설호영 안산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



세계평화여성연합 안산시지부가 주최한 ‘2025 다문화가정 스피치대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전체가 모여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자들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 가족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의 성장 경험 등을 솔직하게 풀어내 관객들의 뜨거운 공감을 이끌어냈다. 각자의 언어와 감정으로 들려준

삶의 이야기는 다문화사회가 지닌 다양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앞으로 매년 대회를 발전시켜 다문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제1호 산업 명장 안산공고 학생 멘토링... 노하우 전수

안산시는 지난 26일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안산시 제1호 산업명장 문형식 명장과 안산공고 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문형식 명장은 금속절삭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올라서기까지의 과정과 기술인으로서의 철학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쌓은 기술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안산공고 관계자는 “문 명장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은 “시는 매년 산업명장을 선정·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명장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산업명장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안산·시흥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정례회의 개최

안산·시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단장: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양승철)은 11월 27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전문화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5년 11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산시·시흥시를 비롯해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1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추진단은 올해 수행한 안전문화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취약 사업장 안전점검 확대, 기관별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정례화, 산업단지 중심 안전문화 확산 활동

강화 등 내년도 협업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다가올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한파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술·건강관리 지원 등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양승철 추진단장은 “올해 안실단 참여기관들의 적극적 활동이 지역의 안전문화 인식 강화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산시·시흥시에 있는 사업장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관산초교서 스쿨존 교통안전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안산시는 지난 26일 관산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와 단원경찰서·안산교육청 등 외부기관, 단원모범운전자회·단원경찰서 학부모폴리스·단원구 녹색어머니회·단원초지동 단체인 등 민간단체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파켓·카드섹션 퍼포먼스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현장에서는 관산초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됐다. 참여자들은 ▲친구에게 친절한

말 사용하기 ▲따돌림 예방 수칙 ▲학교 내 신고 체계 등을 안내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더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횡단보도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된 뒤부터 앞에서 차가 더 잘 멈춰줘서 학교 올 때 안심이 된다”며 “스쿨존에서는 어른들이 꼭 천천히 운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시와 협업해 스쿨존 등굣길 안전캠페인과 초등학교 앞 시설 관리 강화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무사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를 넘어 어른신 보행 안전까지, 예방 체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



이민근 시장(오른쪽 세번째)이 26일 관산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야 하는 가치”라며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광고 / 사업국 (남, 여)	0 명	경력사항 : 신입 / 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나 이 : 30 ~ 60대 기 타 : - 대부도 및 안산 거주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 97, 3층 (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백운동 새마을회 ‘사랑앓 김장나누기’ 행사



단원구 백운동 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사랑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100박스를 정성껏 담가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재료 손질부터 양념 준비, 육수 우려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수 순수 진행하며 정성을 담아 김장을 완성했다. 완성된 김장김치 100박스는 백운동 관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한명호·이진숙 새마을회장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후원해 주시는 신반월새마을금고(이사장 이명세),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산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새마을 회원들이 힘을 모아 따뜻한 겨울나기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사동, 사랑의 김치 나눔으로 온정 나눔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8개 직능단체가 뜻을 모아 ‘2025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치 나눔 행사는 사동 직능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가 참여했으며, 모금한 성금으로 준비된 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460가구와 지역 경로당 10곳에 전달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가정 100가구를 먼

저 선별해 단체 회원들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챙겼다.

유성연 사동 통장협의회장은 “관내 취약계층 분들에게 겨울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로 돌보고 보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현갑 사동장은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덕분에 김치를 필요한 가구에 전달할 수 있었다”며 “세심히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선부3동, 푸른숲어린이집에서 라면 20박스 기탁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푸른숲어린이집으로부터 라면 2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선부3동에 위치한 푸른숲어린이집(원장 김명애)은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후원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달식엔 어린이집 아나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라면 20박스를 기탁했다. 전달식이 끝난 후 한승혁 선부3동장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덕담 시간’이 따뜻하고 훈

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명애 푸른숲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함을 보여준 아이들의 나눔에 감동했다”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후원된 기탁물품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안산동 지사협, LG이노텍과 함께 사업 추진



상록구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LG이노텍과 함께 참여해 ‘LG이노텍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패딩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동 지사협 위원들과 LG이노텍 직원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을 위해 후원금 5백만 원을 기탁한 LG이노텍은 2015년부터 매년 안산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철 김장김치 지원, 경로당 물품 지원, 독거어르신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LG이노텍 직원들과 지사협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와동 직능단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관내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와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와동 직능단체(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한국자유총연맹)가 함께 참여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하고 포장해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준비한 김장김치 320박스(1600kg)는 독거 어르신과 위기가정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참여형 지역복지 실천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수애 와동장은 “추워진 날씨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앞장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월피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상록구 월피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행사 하루 전부터 김장 양념을 준비하고 채소를 다듬는 등 김장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온정을 담아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 7kg 분량의 김장김치 94박스가 마련됐으며, 이를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와 청소년센터, 그룹홈, 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소를 포함한 총 94곳에 직접 전달해 이웃 간 온정을 나눴다.

정현채 월피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이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김치를 준비했다”며 “추운 날씨에도 이틀간 힘써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 운영위원 ” 을 모집합니다 !



대부도저널은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언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우리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대표전화 : 032-880-9994
핸드폰 : 010-4900-4152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저널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 형사 소송
 -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 학교폭력(장보상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 형사 소송
 - ▶ 대역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 ▶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 ▶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임) 및 면허행정소송 등
- ◆ 행정 소송
 -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 공무원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 공무원행정소송 등



이레 법무사
法務士 **신 선 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325, 3층 (대부북동)
Tel : 032 - 881 - 1145 Fax : 032 - 881 - 1165

Mobile : 010 - 8865 - 3882
E-mail : lawhelperv@hanmail.net

이레 법무사
法務士 **신 선 미**

[전문분야]

- 등기분야
 - 상압/ 법인/ 부동산/ 선박
 - 상속/ 증여
 - 민사소송분야
 - 소장/ 항소/ 항고
 - 답변서/ 준비서면
 - 형사소송분야
 - 고소장/ 항소/ 항고
 - 개인회생, 개인파산
- 신청분야
 -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 집행 및 강제집행
 - 압류/ 강제집행/ 추심/ 전부
 - 법원에 관련 된 모든 일
 - 가족관계등록 (호적_
 - 공탁/ 비송분야
 - 가사소송 (이혼/ 인지/ 양자)
 - 행정소송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 주 택 급 매 ***
대부남동 흥성리
대지87평 도로13평 건물17평
주택완공조건

현재시세 ~~3억3천~~ **반값** **1억7천**에 급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펜션 HIDDEN PENSION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티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mi-re enterprise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반달섬 분양 임대 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중구·웅진지구협의회 웅진군에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 라면’ 기탁

웅진군은 지난 27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중구·웅진지구협의회(회장 이석홍)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200박스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라면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되어 든든한 한 끼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이석홍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

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중구·웅진지구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지난 27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중구·웅진지구협의회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200박스를 기탁받았다.

웅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흥 늘푸른센터에서 영흥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성과공유회 가져



웅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난 27일, 영흥 늘푸른센터에서 영흥면 생명존중안심마을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웅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김술지)는 지난 27일, 영흥 늘푸른센터에서 영흥면 생명존중안심마을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영흥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참여기관 17개소의 기관장 및 단체장과 실무자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흥면 생명존중안심마을은 2024년부터 공공기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유통판매 포함) 총 27개

기관이 분사업에 참여해 자살예방 안정망을 조성해온 사업으로, 이번 공유회에서는 웅진군의 자살사망자 현황, 차년도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운영 계획, 지역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을 협력함으로써 자살률 감소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하였다.

또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영흥면생명사랑방범대(선재자율방범대장 백종희, 영흥자율방범대장 박종선), 하나의료조합 영흥우리의원(원장 박상만)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

를 되새겼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모든 국민이 효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들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의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2025 농림어업 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웅진군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의 5년 주기 국가통계조사로, 농림어가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립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등을 대상으로 133개의 조사항목을 다룬다.

이번 교육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직접 진행하며, ▲농림어업총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표 작성 요령 ▲태블릿PC 사용 방법 ▲현장조사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면접기법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상황 대응 요령과 안전수칙, 사후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조사 품질과 요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웅진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32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며, 관내 7개 면 지역 조사구로 지정된 3,892

북도면, 취약계층을 위한 ‘2025 동절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웅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9일과 26일, 북도와 장봉에서 각각 ‘2025년 동절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고, 정성껏 마련한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8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북도면 자원봉사 회원 40여 명과 면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봉사자들은 직접 절이고 양념한 김장김치를 담가 포장한 뒤, 가가

호호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는 등 지역사회 돌봄의 정을 실천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추운 계절일수록 나눔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수영 북도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영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장협의회 ‘온기드림’ 사업을 통한 온기 전파

웅진군 영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혁준, 허복순)는 지난 2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흥면 이장협의회와 함께 ‘온기드림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협의체와 이장협의회가 총 32개의 전기장판을 각 마을별 2가구씩 전달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도 병행했다.

‘온기드림 사업’은 영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특화

사업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이웃 간 정서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허복순 민간위원장과 김대수 이장협의회 회장대행은 “이웃들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준 영흥면장도 “이번 사업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체계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세대를 대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응답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넷 조사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농림어업총조

사는 우리 웅진을 넘어,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군민들께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우리은행 안산금융센터
우리은행 안산남지점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약지점
해너미마을옹보관 구경호 본부장
경기도정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웅진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웅진군의회 의회사무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 광고지원팀
보은용사준(주)전략사업소
보은용사회

김 현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선현우 시의원
강태영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
김태의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장운정 도의원
이은미 도의원
대부동 동장
그랑포도와의너리
나라캠핑장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웅시
화정식당
해신마린
서울안심지과
포도나무공인인증가사
대한축량설계사무소
대부명성한의원
럭키알인마트
명성종합토건
중현어촌체험휴양마을
그린건축사
왕금남시티
이조갈비
왕금목장
G 마트

김선중	김민영	공미숙	차준경	유재용
유강민	김민정	이재선	오준태	빈호준
이정숙	김건민	김국진	김관중	정병국
문기정	양임배	오성숙	양금순	
박영철	모연구	김용현	이병철	— 끝 —
김영란	문상필	이한기	조규현	
이길재	김경희	김시경	박정탁	
이상성	유재용	이승용	박용복	
박익자	김중윤	정안순	조재숙	
임원섭	김영덕	김혜순	김장식	
정순미	백무자	장해연	신준선	
김철중	강영복	이승창	최옥진	
박익락	송원영	박현배	조기열	
정잔빈	이지연	이한중	왕진	
채만식	이정임	최병희	조부형	

마초피싱에서 NH코리아로... 6년째 이어온 진심의 재능기부 사천 합심원에 따뜻함을 전하다



경남 사천시 등대길 65번지에서 각 선단에서 내려와 마초피싱 회원들이 내년을 기약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취미 모임에서 대한민국 대표 낚시 커뮤니티로 성장

낚시를 좋아한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지도 밴드장과 소수의 멤버들이 모여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제는 전국 8천여 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낚시 커뮤니티 '마초피싱', 그리고 현재의 'NH코리아'로 성장했다. 단순한 낚시 모임을 넘어 진정한 낚시계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진 이들의 '재능기부 행사'는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았다.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낚시 조과물과 후원금을 전달해 온 마초피싱은 '좋은 취미가 좋은 마음을 만든다'는 가치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2025년 6회차 재능기부, 사천 합심원에서 펼쳐진 따뜻한 나눔

2025년 11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613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합심원'에서 올해의 재능기부 행사가 열렸다.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이날 잡은 조과물과 모금된 금액봉이 생활인들을 위해 전달됐다. 합심원은 6·25 전쟁 이후 가족을 잃고 떠돌던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노숙인 재활시설로, 현재 백여 명의 생활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자립을 준비하

고 있다. 이들에게 이번 마초피싱·NH코리아의 방문은 단순한 후원 그 이상의 의미였다.특히 올해는 '선사에서 가족을 잃고 거처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여러 선장들이 선비를 받지 않고 전액을 기부 행사에 동참해 감동을 더했다.

“나눔은 꾸준해야 가치가 있다”... 유튜브 수익 전액 기부하는 밴드장의 철학

행사를 마친 자리에서 이지도 밴드장은 “6회째 이어온 재능기부가 NH코리아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과 선행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그는 7년째 이어온 본인의 유튜브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꾸준함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회원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기부는 마음과 선행에서 비롯된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그는 앞으로도 낚시대를 잡을 수 있는 날까지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나눔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6년부터 ‘2회 연중 기부 행사’ 추진... NH코리아의 글로벌 사회공헌도 박차

마초피싱에서 NH코리아로 성장한 만큼 활동도 더욱 넓어진다. 이지도 밴드장은 2026년부터는 재능기부 행사를

연 2회(서해·남해 분할)로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NH코리아는 자체 수익의 3%를 적립해 해외 낙후 지역 학교 건립, 우물 개발 등 국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국내 봉사를 넘어 세계적으로 선행을 확장하는 모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행사에서도 NH코리아 회원들은 조과물과 후원금 전달뿐 아니라 생활인들과의 교류 시간을 통해 '낚시인의 마음은 크고 넓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합심원의 감사 메시지... “여러분의 따뜻함이 생활인들의 내일을 밝힙니다”

합심원은 이날 전달받은 후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거리의 노숙인은 우리 주변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친구일 수 있다. 여러분의 응원은 생활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합심원은 자립능력이 낮은 생활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동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마초피싱과 NH코리아의 꾸준한 지원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사회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따뜻한 위로를 되고 있다.행사 마무리 인사에서 관계자는 “정말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었다. 다음 행사에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년 NH코리아 기부현황 (합심원)

이름	기부내역	금액
이지도 NH코리아	성금 (유튜브수익금)	기부 물품+성금 총액 ₩8,335,200
	주꾸미 (70kg)	
	쌀 20kg (10포대)	
	라면 (20BOX)	
선사 뉴대룡	성금	
선사 대룡1호	성금	
선사 브라더	성금	
선사 철인28	성금	
선사 주홍호	성금	
선사 수경호	성금	
선사 아라호	성금	
선사 금빛호	성금	
김해민	성금	
편무일	성금	
김현찬	성금	
곽승철	성금	
곽경섭	성금	
최영주	성금	
하한덕	성금	
정수형	성금	
NH코리아 기부 총액	합계	
이기원(플라스크)	성금	
방효강	성금	
김학기	성금	

2025년도 NH코리아 기부현황(합심원)



마초피싱 회원들이 경남 사천시 등대길 65번지에서 당일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마초피싱 밴드장으로부터 안전수칙 및 전달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재호 밴드장이 경남 사천시 등대길 65번지에서 올해가 6회째인 재능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613 (이홀동) 합심원 관계자와 모금한 성금과 물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남 사천시 삼상로 613번지에서 NH코리아 기부금과 기부물건을 전달하고 마초피싱 회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만 생산해서는 미래가 없다”… 행낭곡어촌계의 세대교체 행낭곡어촌계 박승경 어촌계장

대부도 행낭곡어촌계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김양식은 단순한 계절 노동이 아니라 1년 내내 바다와 씨름하는 고된 업이며, 최근에는 2세대 젊은 어민들이 대거 합류해 어촌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 환경규제로 인한 공장 신설 제한, 생산자와 유통자의 가격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어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행낭곡어촌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산 중심 어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번 수상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김 양식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 편집자주

“장관표창은 우리 모두의 노력”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어촌계 김양식 자율관리공동체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승경 어촌계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김양식 어민들이 1년 내내 바다를 지키며 해안 정화와 어장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행낭곡어촌계는 전체 110가구 중 70가구가 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그중 23가구가 김양식업을 운영한다. 이번 상은 공동체가 만들어낸 일상이 국가적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의 절반을 바다에서”… 김양식의 현장

김양식장까지는 배로 30분, 약 12km를 달려 나가야 한다. 거친 바다 환경 속에서 포자를 붙이고, 11월부

터 이듬해 4월까지 채취를 반복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여름에도 김발과 시설을 정비하느라 쉴 틈이 없다. 박계장은 “어업이라고 하면 겨울만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김양식은 1년 내내 손이 가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기존 어민들의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김양식에 합류하며 30~40대 젊은 어민이 23명까지 늘었다. 그는 “귀어인이 아니라 '2세 어민'이 들어오는 구조라 더 튼튼하다”며 “행낭곡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김이 넘쳐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행낭곡어촌계의 가장 큰 고민은 가공시설 부족이다. 대부도 전체에 김공장은 단 한 곳뿐이며, 시설이 낙후돼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 박계장은 지난해 상황을 떠올리며 “풍작이었는데 공장 수용량이 모자라 결국 많은 김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규제다. 김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까다로운 기준에 걸리면 신규 공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산업단지에서 건립을 권고받아도 규제 수준은 똑같다. 그는 “예전에는 굴껍질에 포자를 붙여 키우던 김포자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현재 있는 청춘수산공장의 설비라도 신형으로 교체해 생산 효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신형 설비로 교체하면 현재 100단 생산량을 150단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자는 힘들고 유통은 남는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김 가격 문제도 심각하다. 김 한자루(120kg)는 과거 18만~20만원에 거



행낭곡어촌계 박승경 어촌계장이 어촌문화공감센터에서 최근 김양식 자율관리공동체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박계장은 바다환경 보전, 어장관리, 세대교체 등 어촌의 변화와 미래 전략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래되었지만 지난해에는 풍작 탓에 4만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완제품 김 가격은 7~8천원으로 예년과 동일했다. 박계장은 “생산자는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는데 유통 마진은 그대로거나 더 늘었다”며 “이 구조로는 김양식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는 생산만으로는 생존이 안 되고, 반드시 유통까지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손도 문제다. 김양식

한 가구는 2~3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 “일은 힘드네 내국인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양식업은 연 1억~2억 원의 수입이 가능한 고수익 업종이어서 행낭곡어촌계는 대부도에서도 ‘경제력이 탄탄한 어촌’으로 알려져 있다.

“세대가 이어지는 어촌,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행낭곡어촌계는 어촌문화공감센터를 중심으로 어민대기실, 위판경매장, 회의실, 사무실 등 공동시설을 갖추며 어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계장은 “이번 장관표창을 계기로 김양식의 가치와 어민들의 노력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

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가 어업에 남아 있다는 것이 행낭곡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다음 단계는 가공시설 현대화와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다. 이제는 우리가 바다와 어촌의 미래를 준비할 차례”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지난 여름 행낭곡어촌계 홍영기 계원님이 김연합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때 어촌계원들이 다함께 축하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행낭곡어촌계 회원들이 어장에 널부러져 있던 폐그물을 정리하는 등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낭곡어촌계 회원들이 어촌문화공감센터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7회 호국전마(護國戰馬)를 길러낸 국마목장(國馬牧場) 대부도 지명 이야기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지금으로부터 631년전 태조 3년(1394년)에 경기도는 좌우도로 나누어져 있었고, 대부도는 경기도 남양부의 경기우도(京畿右道)에 속해 있었다. 이 섬에는 말을 사육하였는데 목장 운영은 매우 중요하였다.

고려 제26대 충선왕 2년(1309년) 모든 목(牧)을 없앴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었다가 조선 제3대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그만큼 목장 운영은 국가에서 중요 대사였다.

조선시대 말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판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2019.06.04.)에 의하면 574년 전(1451년) “일반 마(馬) 1필의 가격이 쌀 60가마로 1천2백만원을 호가하였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는 말 한 필에 오승포(五升布)로 대마(大馬)는 상등이 500필, 중등이 450필, 하등이 400필, 중마(中馬)는 상등이 300필, 중등이 250

필, 하등이 200필로 거래되었다. 조선시대 마정은 외교면에서 더욱 중시되어 국초부터 세종까지 무려 6만 필의 말을 수출하여 원나라와 명나라까지 그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 목장이 대부도에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을까?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양도호부 소속 대부도는 길이 30리요 너비가 15리이니 좌도선군영(左道船軍營)의 발 100여 결이 있으며, 나라의 말 4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이전부터 국마목장이 운영되었을 것이다.

18세기 중엽에는 말 568필과 목자가 839명 소속되어 있었고, 조선 제19대 숙종 3년(1667년)에는 제주도의 준마 68필을 대부도 목장에서 번식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가에서 중요시한 말(馬) 관련 지명이 대부도에 많다. 방아머리 선착장 조성으로 없어진 ‘마여(馬嶽)’ 말의 오줌 같아 약이 된다고 손발이 빠졌을 때 담갔다는 ‘독죽골 약수터,’ 산의 형상이 말 모양 같다 하여 붙여진 ‘말물재와 말머리재’로 현재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뒷산이다.

부락 앞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 목마른 말이 연못에서 갈증을 면했다는 ‘갈마지(渴馬地),’ 국마를 관리하는 목자가 기거한 대부남동 중부흥의 ‘행남곡,’ 대부동동 한지락골 너머의 ‘행남골(行廊谷),’ 대부북동 두우현에 목부(牧夫)가 많았다는 ‘항남골’이 있다.

흘곳의 말이 지나다닌 큰마위로 만



호국(護國) 전마(戰馬)를 길러낸 국마목장(國馬牧場)의 섬 대부도 지명 지도

든 ‘말문리,’ 남리 샛티와 막골 사이의 씨종자(種子) 말이 지나다녔다는 ‘종자문,’ 샛티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흥성리 작은팔루리까지의 ‘샛티마성(馬城),’ 남4리의 ‘흘곳마성,’ 중부흥 행남곡에서 마조금 바닷가까지 목책을 친 ‘마조금 마성, 흥성리의 ‘큰산 돌레 마성’과 말이 굴러떨어졌다는 ‘작은마락골과 큰마락골,’ 큰산 너머 말들이 벌목욕을 하며 놀았다는 ‘말물이 갯벌’이 있다.

백마(白馬)가 태어났다는 흘곳과 긴장불이 사이의 ‘두몽,’ 말과 관련된 말을 남3리 행남곡, 행남채 앞에 독을 쌓은 ‘행남곡방조제,’ 중부흥과 남3리 사이 말들이 벌목욕을 하며 놀던 ‘마조금벌과 마조금길,’ 갯벌이 깊

어 말이 빠져 죽었다는 고랫부리 앞 ‘영장마루,’ 선감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골짜기에 있었던 ‘말재비드렁,’ 철종임금 재위 시 신당동부터 당전까지 20여리를 하사받아 오위도총부 소속 군마훈련장(軍馬訓練場) ‘우당원’ 등이 있다.

대부도 목장은 조선 전기에 설치되어 조선 중기에는 말과 목자가 상당수에 이르렀으나, 조선 후기에 말이 점차 폐사되어 갑신정변이 일어난 고종 21년(1884년)에 각지로 분양되었고, 분양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58필을 마리당 10냥으로 환산하여 사복시에 납부시킨 후 저물어가는 국운과 함께 호국전마(護國戰馬)의 대부도 목장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데스크 칼럼

세대가 함께 숨 쉬는 문화, 대부도의 오키리나가 울릴 때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에서 한 음악인의 꾸준한 꿈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임은미 원장이 추진 중인 ‘세대공감 오키리나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음악 동호회가 아니다. 각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여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실험이다. 특히 10대부터 80대까지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구상은 지역의 인구구조를 반영하면서도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지역 문화 프로그램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임 원장의 발상은 신선함을 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솔직한 답변처럼 보인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어도, 오키리나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 ‘쉬움’이 대중성으로 확장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문턱의 낮음이야말로 대부도가 가진 문화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이 된다.

그가 구상하는 오케스트라는 각 세대별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약 80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단순히 참여 인원 계산에 그치지 않는다. 80명이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를 맞추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과정이 곧 공동체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조

율하는 예술이다. 그 속에서 세대 간 오해가 사라지고, 지역 주민 간의 유대는 자연스럽게 축적된다. 대부도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적 브랜드가 탄생할 가능성이 여기에 서 비롯된다.

대부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 콘텐츠는 늘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외부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는 많지만, 정작 ‘지역민을 위한 문화’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돼왔다. 이런 현실에서 오키리나 오케스트라 구상은 지역 문화의 방향을 “소비에서 생산으로, 관람에서 참여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도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며,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8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운영에는 현실적 과제도 존재한다. 연습 공간, 운영비, 프로그램 체계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 문화는 언제나 ‘큰 돈’보다 ‘첫 사람’이 중요했다. 누군가 시작을 열고, 그 움직임에 공감하는 주민이 하나둘 모일 때 비로소 지역 문화는 살아난다. 임 원장의 도전은 바로 그 첫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도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 세대가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오키리나의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가 지역사회에 남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대부도에는 지금 조용한 문화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 작은 악기가 언젠가 대부도의 가장 큰 울림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아무진 임은미 원장의 원대한 꿈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신협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탁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대부도 수제포도와인 · 포도즙

우리랑

자연으로 빛은 건강한 한 잔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의 정성
안상의 자랑 대부도 수제 포도와인

우리랑